

# 退溪의 『詩經』 해석과 그 특징

심경호\*

## || 차례 ||

1. 머리말
2. 퇴계 「시석의」의 특징과 퇴계의 시경학
3. 조선전기 시경학의 흐름과 퇴계 「시석의」의 위치
4. 맺는 말

### 【국문초록】

퇴계는 『사서』와 『역경』의 연찬에 주력하되, 번쇄한 訓詁를 第一義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퇴계는 경학 연구에서 기초학으로서의 小學(philology)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퇴계가 경학 연구에서 소학을 중시한 사실은 『四書三經釋義』 곧 『經書釋義』에 잘 나타나 있다.

퇴계는 『시집전』과 『시전대전』의 小註를 참고로 하여 시편의 義理를 해석하였다. 대전본 小註가 『시집전』과 모순되는 경우나 小註 사이에 취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정설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퇴계는 시편의 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경문이나 新註 및 대전본 小註의 난독자(僻字)나 破讀字에 대하여 그 음과 훈을 살폈다. 구 석의본의 음주나 속음을 정정하기 위해서 주희의 음이나 대전본의 음을 환기시키고, 여러 운서와 자서(『옥편』)의 음과 훈을 참고로 하였다. 특히 퇴계는 『광운』과 『예부운략』을 활용하였다. 간혹 『광운』의 간략한 훈석에 의거하여 한자음을 추정하다가 성조의 차이와 의미 분화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예도 있다. 또한 新註나 대전본 음주의 破讀을 분석할 때 오류를 범한 예도 있다. 그러나 자음과 자훈을 고려하여 經文과 傳文을

---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 교수

해석한 것은 장구 해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임에 틀림없다.

**주제어** 퇴계, 『四書三經釋義』, 『小學』, 『詩集傳』, 音註, 釋義

## 1. 머리말

퇴계는 道問學과 尊德性의 일치를 추구한 진정한 도학가이다.<sup>1)</sup> 그런데 퇴계는 도문학의 내용이라고 할 경학 연구에 많은 공력을 쏟았다. 특히 『사서』와 『역경』에 주력하되, 빈쇄한 訓詁를 第一義로 삼지는 않았다. 문인 鄭惟一이 작성한 「言行通述」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퇴계 경학의 특성을 매우 적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經傳子史 가운데 보지 않은 것이 없었으되, 젊을 때부터 『사서』·『오경』에 힘을 썼고, 그 중에서도 『사서』와 『역경』에 더욱 깊어서, 왕왕 그것을 背誦해서 틀림이 없었다. 혹은 한밤중에 일어나 庸學(중용과 대학)과 『심경』을 諷誦하기도 하여 상례로 삼았다. “경서의 글자 해석이 천착과 오류가 많아 경전의 본뜻을 잃어서 후학들을 그르침이 많다”라고 여겨서, 그 천착을 바로잡고 오류를 확정하여 경전의 옛 뜻을 되돌리고 성현의 본뜻을 다시 찾으매, 그로 말미암아 학자들이 속유의 왜곡된 설에 의혹되지 않게 되었다. 또 數學(상수학)도 이치 밖의 글이 아니라 해서, 계축년 이후로는 수학을 아울러 공부하였다. “주자의 『啓蒙』은 수학의 종조이지만 모를 곳이 많다”라고 하여, 여러 해를 음미하고 탐색해서 그 근원을 환하게 연구하여, 마침내 『啓蒙傳疑』를 지어 그 뜻을 발휘하고 분석해서 미해결의 것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늙어서는 이 『계몽』으로 학자들을 많

1) 율곡 이이는 선비의 유형을 遺賢·隱遁·恬退·盜名의 넷으로 나누고, 內聖外王의 포부를 지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능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安居하여 학문과 수양에 몰두하는 부류인 隱퇴의 전형으로 퇴계를 꼽았다. 李珣, 『栗谷全書』 권2, 「代白參贊仁傑論時事疏」.

2) 鄭惟一, 「言行通述」, 『言行錄(VI)』, 『퇴계집(II)』(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968), 397쪽. 번역문은 원문을 참조하여 약간 다듬었다.

이 가르쳤다.

위의 지적에서 주목할 점은, 퇴계가 “경서의 글자 해석이 천착과 오류가 많아 경전의 본뜻을 잃어서 후학들을 그르침이 많다”라고 여겨서, “그 천착을 바로잡고 오류를 확정하여 경전의 옛 뜻을 되돌리고 성현의 본뜻을 다시 찾았다”라고 한 점이다. 곧 퇴계는 경학 연구에서 기초학으로서의 小學(philology)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sup>3)</sup> 퇴계가 경학 연구에서 소학을 중시한 사실은 『四書三經釋義』 곧 『經書釋義』에 잘 나타나 있다.<sup>4)</sup> 이 『사서삼경석의』는 미암 柳希春이 1574년(선조 7) 어명으로 경서의 현토언해를 전담하였을 때 참고하려고 하였던 『四書五經口訣諺釋』의 일부이다.<sup>5)</sup> 유희춘의 病沒로 경서 토석 작업은 중지되지만, 유희춘이 계를 올린 다음날 10월 20일에 승정원이 퇴계의 『언석』을 증앙으로 이송케 해달라고 청한 것으로 보아, 퇴계의 『언석』은 일찌감치 궁중에 收藏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1585년(선조 18)에 교정청이 諺解本 撰定을 재개하였을 때 퇴계의 『경서석의』도 다른 諺釋本과 함께 참고로 하였을 것이다. 퇴계는 52세 때 성균관 대사성으로 취임한 뒤 3년 11개월간 서울에서 소장 학자들과 연찬하였으나, 55세 되던 해 2월말에 사직하고 淸涼山에 노닐어 벼슬살이의

3) 퇴계는 한국지성사에서 기초학을 도문학(道問學)의 방법으로서 적절하게 구사한 위대한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심경호, 「退溪와 茶山 - 문헌학의 연속성과 차별성」,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3호,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3. 8. 91-114쪽.

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년 영인 『增補退溪全書』所收 8권 2책. 『경서석의』는 ‘사서삼경석의’(혹은 ‘삼경사서석의’)로 불리는 것이 통례이다. 이황 자신은 ‘경서석의’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목판본의 琴應壩 발문에서도 ‘경서석의’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汎稱이라 하겠다. 奎章閣과 誠菴古書博物館에는 『삼경석의』가 收藏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성균관대도서관·日本東洋文庫에는 『사서석의』가 별책으로 수장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일지사, 1999), 제4장 제2절 참조.

5) 經書吐釋의 제정령이 있자 유희춘은 퇴계의 『사서오경구결언석』을 참고할 수 있도록 원고를 이송시켜 달라는 啓講을 그해 10월 19일에 하였다. 『眉巖日記草』 참고.

시름을 씻었다. 『사서삼경석의』는 서울 체류 중에 편찬한 듯하다.<sup>6)</sup> 手寫本 『경서석의』는 임진란의 兵火로 없어졌고, 현전본은 1608년(선조 41, 몰년) 경상감사 崔瓘과 퇴계 문인 琴應堦이 傳寫本들을 수습해서 그것을 토대로 다음해(1609년) 목판 인쇄한 것이다.

퇴계는 경학에서 『사서』와 상수학을 중시하였지만, 『시경』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그렇기에 퇴계는 詩篇의 어구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정신 세계를 드러내고는 하였다. 그 한 예로, 61세 때 봄에 상계 본택에서 도산으로 걸어오다가 지은 시(「步自溪上踰山至書堂, 李福弘·德弘·琴悌筓輩從之」)를 들 수 있다. 이 시는 無作爲의 공간, 鳶飛魚躍의 활발한 경계를 그려 보인 것으로 이해된다.<sup>7)</sup>

花發巖厓春寂寂	가파른 벼랑에 꽃 피어 봄날이 적적하고
鳥鳴澗樹水潺潺	시내 나무에 새 울어 시내 더욱 잔잔하다.
偶從山後攜童冠	우연히 산 뒤에서 동자(童子)·관자(冠子) 이끌고
聞到山前問考槃	한가로이 산 앞에 이르러 고반(考槃)을 묻노라.

琴蘭秀는 이 시를 두고 “아래·위가 생각이 한 가지로 흐르고, 각기 그 미묘한 경지를 얻은 것이 마치 曾點이 ‘沂水에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 쐬고 싶다’고 말한 기상과, 周濂溪가 뜰에 핀 풀을 깎지 않고 그대로 두어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고자 하였다는 뜻과 같다고 하였다.<sup>8)</sup> 비록 퇴계는 ‘추리

6) 1555년 출성 직후 한달 동안 청량산에 기거한 퇴계는 趙穆에게 서한을 내어, 서울에 있을 때 考訂한 『啓蒙疑義』를 개정코자 하니 되돌려 달라고 하면서, ‘諸經釋義’ 가운데 『易釋』에 대해 評駁改定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때 ‘詩書論孟’의 釋義는 아직 본향인 烏川(安東)에서 오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7) 『퇴계선생언행록』의 이덕홍 기록에 의하면, 어떤 중이 남명 조식의 시를 드리자 퇴계가 몇 번 읽어보고 “이 노인의 시는 대개 기발하고 준엄한데 이것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그 운에 맞추어 지은 절구가 이 시라고 하였다. 그러나 ‘潺·槃’의 평성 桓韻字를 사용한 남명의 시는 현전 『남명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8) 『惺齋先生文集』, 「陶山書堂營建記事」.

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하였으나, 과연 이 시에는 上下流動하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낀 悟道의 경계가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의 尾聯에 나오는 '考槃'이란 말은 『시경』 衛風의 편명에서 따온 것이다. 그 시편의 첫 구에 “考槃在澗，碩人之寬”이란 말이 나온다. 毛傳은 “考，成，槃，樂也”라 하였다. 朱熹의 『詩集傳』은 “考，成也. 槃，盤桓之意. 言，成其隱處之室也.”라 하고는, 陳氏의 설을 병존하여, “考，扣也. 槃，器名. 蓋扣之以節歌，如鼓盆拊缶之爲樂也.”라 하고, 어느 설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毛詩序』는 이 시편에 대하여, 衛나라 莊公이 선군의 위업을 잊지 못하고 현자를 곤궁하게 하는 것을 풍자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鄭玄의 『箋』은 『모시서』의 뜻을 부연하여, 현자가 퇴거해서 궁하게 거처하는 상황을 묘사했다고 보고는, 첫 구의 '寬'을 '궁핍에 처한 기색이 있다'고 풀이하였다. 하지만 주희의 『시집전』은, 현자가 澗谷 사이에 隱處하면서도 뜻이 碩大 寬廣하여 戚戚한 뜻이 없으므로 시인이 그를 찬미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퇴계는 '고반'을 '현자가 어렵게 살면서도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는 경지'로 보았다. 그렇기에 위의 시에서 “한가로이 산 앞에 이르러 고반을 묻노라(閒到山前問考槃)”라고 한 것이다. 곧 퇴계는 「고반」 시편의 해석에서 주희의 『시집전』을 따랐다.

퇴계가 위의 시에서 말한 '고반'의 장소는 곧 도산서원을 가리킨다. 퇴계가 사는 낙동강에서는 연어가 많이 나서 진상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고을에서는 여름이 되면 곳곳에 발을 쳐둔다고 한다. 그래서 음력 6월이 되면 퇴계는 講學을 중지하고 上溪 자택으로 철수하였다. 또 겨울이면 자택에 머물다가 봄이 되면 고반의 장소인 도산서원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이 시에는 자연에 순응하는 퇴계의 온화한 삶이 잘 반영되어 있다.

한편 퇴계는 「도산십이곡」의 前六曲 제5곡에서 '산 앞에 대가 있고'·'대 아래에 물이 흐르는' 無作爲의 공간을 그려보였다. 機心을 잊으려고 해서

잇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기심이 없는 마음의 경계를 드러낸 것이다.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뼈 만흔 굴며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다다 皎皎白駒는 머리 밋습 하는고

종장에서 말하는 '머리 밋습'은 곧 등용을 바라는 마음이다. 퇴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 애당초 초야에 버려져 있다는 鶴鳴之嘆이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종장의 '皎皎白駒'는 『시경』 小雅 「白駒」편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 첫 장에 “皎皎白駒，食我場苗。繫之維之，以永今朝。所謂伊人，於焉逍遙。”라고 하였다. 모시서는 「백구」편에 대해 대부가 宣王을 풍자한 것이라고 보았고,<sup>9)</sup> 정현의 『전』은 현자를 머물게 하지 못하는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시편에 특별히 풍자의 뜻은 없는 듯하다. 그렇기에 『시집전』은, 현자를 머물게 하지 못해서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시집전』의 해석을 따랐다.

퇴계의 『경서석의』는 大全本 『사서삼경』의 경문과 新註 및 小註를 대상으로 하여 吐釋과 音註의 문제, 나아가서 경학상의 쟁점을 검토한 것으로, 16세기 경학의 수준을 반영한다. 그 『삼경석의』에는 『시경』의 언해와 현토 문제를 어구별로 논한 『詩釋義』가 들어 있다.

여기서는 『시석의』를 중심으로 퇴계 시경학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조선전기 시경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논하고자 한다.<sup>10)</sup>

9) 『春秋穀梁傳』의 范寧 序에 의하면 ‘君子之路’가 막히자 「백구」편이 지어졌다고 하였다.

10) 이하의 논술은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일지사, 1999), 제4장 제1절과 제2절의 내용에 의한다.

## 2. 퇴계 「시석의」의 특징과 퇴계의 시경학

『경서석의』는 기왕의 ‘석의’를 검토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퇴계는 1557년에 정유일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경서석의’ 각각 서너 건씩을 구하여 상호 참작하고서 그 의심나는 곳을 베꼈으며, 자못 역견을 덧붙여 논해서 망각에 대비하였다.<sup>11)</sup>

고 밝혔다. 뒷날 安鼎福은 『橡軒隨筆』에서, 퇴계의 『경서석의』가 金繼趙·李克仁·孫暲·李得全·李忠綽·駱峯(申光漢)·李復古(李彦迪) 등의 설을 인용하였다고 논하였다.<sup>12)</sup> 목판본 『경서석의』를 검토해 보면, 『시석의』는 김계조 소장의 『釋義并考字音』, 이극인 釋義, 손경 석의, 이득전 석의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吐釋의 문제를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득전은 1514년(중종 9)부터 1520년 사이의 『실록』 기록에 ‘師儒’의 전형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1514년 2월 7일(신축)에 사간원은 이득전을 성균관 직장으로 천직시킬 것을 청하였고, 같은 해 12월 21일(기유)에는 영의정 柳洵이 선발한 ‘師儒可當者’ 28인 가운데 그의 이름이 들어 있다. 1520년(중종 15) 7월 22일(무신) 사간원은 장령으로 있던 이득전을 司成으로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한편 김계조와 이극인은 ‘생원’이라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황이 참고한 구 석의성균에 유전되던 사본들이었을 듯하다.

2-1. 퇴계의 『시석의』에 音註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그 註音 방식과 韻書의 인용 방식은 경학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석의』의 음

11) 滉在都日, 求得經書釋義各數件, 互相參酌, 而傳寫其有可疑處, 頗以臆見附說, 以備遺忘.

12) 『順庵集』권13 「橡軒隨筆」 ‘前輩著述.’

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新註와 大全本の 註音을 환기시키고 그 주음에 상당하는 한자음을 한글이나 直音으로 표시한 것
- ② 신주나 대전본의 주음과는 별도로 한자음을 추정한 것
- ③ 難讀字의 한자음을 한글 혹은 직음으로 표시한 것
- ④ 韻書를 활용하여 난독자의 음과 훈을 분석한 것

(1) 新註와 大全本の 주음을 환기시킨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屢屢, 音琰移.(詩 秦風「晨風」, 『集傳』云, 此與屢屢之歌同意. 大全本註, 音移.)
- 鱧, 禮.(詩 白華之什「魚麗」, “魚麗于魴鱧,” 朱熹音, 鱧音禮.)
- 魴, 同.(同上, 『集傳』云, 鱧魴也. 大全本註, 魴同也.)
- 衍, 간.(詩 白華之什「南有嘉魚」“式燕以衍,” 朱熹音, 苦旦反.)
- 兌, 音되.(詩 文王之什「綿」, “行道兌矣,” 朱熹音, 吐外反.)
- 遙, 俗홀.(詩「文王有聲」, “遙駿有聲,” 朱熹音, 戶橘反.)
- 苑, 音運.(詩「都人士」“我心苑結”, 朱熹音, 於粉反.)

(2) 新註나 大全本の 음주와는 상이한 음가를 추정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馮馮, 音從憑讀.(詩「綿」“削屢馮馮,” 朱熹音, 扶水反.)

퇴계는 馮字가 ‘陝·蕘·登·興·勝’과 叶韻하는 것에 주의하여 주희의 음주를 따르지 않았다. 王力の 『詩經韻讀』<sup>13)</sup>에 따르면 이 馮字는 蒸部韻字다.

13) 王力, 『詩經韻讀』(上海古籍出版社, 1980).



- 伴, 반. (詩「卷阿」“伴奭爾游矣”朱熹音, 判.)

‘伴奭’은 周頌「訪落」의 ‘伴奭’이나 『주역』「屯卦」의 ‘盤桓’과 같은 단어이다. 단옥재(段玉裁)는 『대학』에 나오는 ‘心廣體胖’의 胖字도 같은 글자로 보았다. 단, 단옥재는 이 伴의 上古音을 薄滿切로 보았으나, 『廣韻』(澤存堂藏板本)에 따르면 伴奭의 伴은 薄半切(翰韻)로, 伴侶의 伴이 蒲旱切(緩韻)인 것과는 구별된다. 주희의 ‘判’음은 薄反切에 상응한다. 퇴계는 상고음을 고려하지 않고 伴字를 현실음으로 읽었다.

(3) 난독자의 한자음을 한글 혹은 直音으로 표기한 예는 다음과 같다.

- 饒, 音堯. (詩 彤弓之什「采芑」, “鉦人伐鼓,” 大全本所引『孔疏』, “說文云, 鉦饒也, 似鈴. 又云, 鐃鉦也.”)
- 鐃, 音濁. (위와 같음)
- 柴, 音지. (詩 彤弓之什「車攻」“助我舉柴”, 『集傳』云, “柴, 說文作棼, 謂積禽也.”)

이 가운데 난독자의 직음은 구 석의본에 붙어 있던 것인 듯하다. 직음을 가지고 한자음을 추정할 때, 퇴계의 추정음이 속음과 다른 예가 있다.

- 搏拊, 音撫. 撫音拊, 而俗無字皆音拊, 故亦讀拊爲拊. 是不知撫字方武切, 當爲拊音, 則拊亦當讀曰拊, 乃可. (書「益稷」“搏拊琴瑟以詠祖考.” cf. 校正廳本, 音拊.)

퇴계의 “撫, 方武切”은 『광운』의 夔韻撫小韻本字의 芳武切에 상응하되, 다만 反切上字를 잘못 옮긴 듯하다. 方은 幫母, 芳은 滂母이지만 方과 芳은 조선한자음이 같으므로, 퇴계는 이 반절음에 의거하여 속음과는 달리 撫의 聲母를 [b-]로 추정한 것이다.

퇴계의 『시석의』를 비롯한 『경서석의』의 직음은 『新編直音禮部玉篇』의

직음을 그대로 전제한 것은 아니다.<sup>14)</sup> 아마도 조선 경학에서 註音에 독자적인 직음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던 듯하다.

(4) 퇴계의 『삼경석의』 가운데 『시석의』와 『서석의』는 한자음 분석에서 ‘禮部韻’과 자서인 『玉篇』을 이용하였으며, 그밖에 ‘大廣益會’란 이름의 운서를 이용하였다.

퇴계는 음주에서 『옥편』의 반절음과 주를 자주 인용하였다. 그런데 이황이 참고한 『옥편』은 결코 崔世珍이 편한 『韻會玉篇』이 아니다. 『운회옥편』은 『고금운회거요』의 검색을 위해 부수별로 字種을 배열한 책이며, 반절음을 별도로 붙이지 않았다.

‘예부운’은 구 석의본(특히 김계조 소장 釋義并考字音)에서 빈번하게, 그것도 직음이나 추정음의 형태로 인용되어 있다. 이때의 직음이나 추정음은 『직음예부운략』의 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다. 『경서석의』에서 이황이 제시한 ‘예부운’이 『예부운략』의 어느 텍스트의 주음과 상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sup>15)</sup>

『시석의』에서 ‘예부운’을 인용한 대표적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 14) 『신편직음예부옥편』은 『排字禮部韻略』의 일부 판본에서 권말에 붙은 색인으로, 본문의 열람에 편하도록 자류를 364부로 나누어 각 글자의 直音(간혹 反切音으로 표기한 것도 있다)과 소속 운목의 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이를테면 康熙本(1679년 覆道州本)과 鏡城本(甲寅春月)의 『排字禮部韻略』에 직음의 색인이 부기되어 있다.
- 15) 『예부운략』은 송대에 科試用 운서로 찬정된 이후에 新降本, 續降本, 補遺本, 毛晃父子의 『增修互註禮部韻略』(이하 簡稱 『증운』), 劉淵의 平水本(江北本, 『王子新刊禮部韻略』) 등이 속간되었다. 『增修互註禮部韻略』, 平水本, 新降本(『禮部新降通併韻略』)이 현전하며, 그 외에 四庫全書所收本인 『附釋文互註禮部韻略』(혹은 四部叢刊本)도 있다. 『배자예부운략』은 平水本의 자류를 재배열한 것이다. 이에 비해 朝鮮本 新降本은 平上去入의 四聲에 따라 字類를 韻目別로 배열하되, 小韻目の 구분이 없고 反切 표시도 없이 字義만 간략히 밝혔다.
- 16) 그밖에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偈. 禮音桀. 俗同. 然桀之正音亦非. 乃. 桀字. 則此音同之. 本字下, 起竭反. 竭

○ 銚, 禮韻弔, 又遙. 俗音遙. (詩 檜風 「隰有萋楚」)

이것은 新註 “萋楚, 銚”의 銚字에 대전본이 ‘音遙’라고 註音한 것을 검토한 내용이다. 『직음예부옥편』은 銚音掉로 표시하였다. 『부석문호주예부운략』이나 『증운』을 보면 이 글자는 他彫切(蕭韻祧小韻), 餘招切(宵韻遙小韻), 徒弔切(嘯韻調小韻)의 3음인데, 『시석의』의 ‘又音 遙’는 餘招切의 小韻字에 대응한다. 新降本에는 註音이 없다. 한편 『古今韻會舉要』는 銚字에 餘招切(蕭韻遙小韻)과 徒弔切(嘯韻調小韻)의 2음을 두었다. 퇴계가 ‘예부운’에서 인용한 本音 弔는 徒弔切에 대응하는 듯하다. 하지만 왜 小韻目字를 들지 않고 反切下字만으로 표기하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한편 『경서석의』가 인용한 ‘대광익회’는 명칭만 볼 때는 陳彭年이 증수한 『大廣益會玉篇』을 가리킨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퇴계는 『옥편』을 인용한 같은 곳에서 별도로 ‘대광익회’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대광익회’는 결코 『대광익회옥편』이 아니다. 이를테면 『시석의』는 陳風 「月出」편의 “勞心慄兮”와 “勞心慘(詩集傳云, 當作慄)兮”의 ‘慄’와 ‘慄’에 다음과 같은 音註를 붙였다.

- 慄 『玉篇』, 蘇勞切, 憂心, 又音草.
- 『大廣益會』, 慄, 憂心. 慄, 上同. 皆音草.
- 慄 『益會』見上. 『玉篇』, 七刀·七老 二切. 愁不樂也.

주희는 慄字를 七老反으로 읽고, 慄字를 七吊反으로 읽었다. 퇴계의 『시석의』가 인용한 『옥편』은 곧 『대광익회옥편』을 가리킨다. 위의 두 글자

---

亦同音결也. (詩 檜風 「匪風」)

- 筐, 禮과. 又卓. 又삭. 俗삭. (詩 小雅 「南有嘉魚」)
- 樸, 禮쇼. 俗소. (詩 小雅 「南有嘉魚」)

에 대한 음과 훈은 『대광익회옥편』의 心部에 이황이 인용한 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대광익회’의 음과 주는 『광운』에 의한 것이다. 『광운』은 燥字를 豪韻騷小韻(蘇遭切)과 皓韻草小韻(采老切)의 2음으로 읽고 후자를 ‘憂心’의 뜻으로 풀이하는 한편, 慄字는 후자와 동일 小韻 안의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그 뜻이 같다고 하였다. 『증운』도 豪韻騷小韻(蘇曹切)과 皓韻草小韻(采早切)의 2음으로 읽으면서, 慄를 燥와 같은 小韻 속에 소속시켰다. 그런데 燥의 上聲字에 대하여 『증운』은 “燥燥, 愁不安貌”라 훈하고, 慘字와 燥字의 혼용을 경계하면서, 「월출」편의 이 구절은 ‘慄’로 적어야 한다는 毛晃의 案語를 부기하였다. 그리고 ‘慄’에 대하여는 ‘憂也’라 註하였다. 『고금운회거요』는 慄字를 豪韻操小韻(食刀切)과 皓韻草小韻(采早切)의 2음으로 읽으면서 『증운』과 같은 내용을 적었고, 燥字는 皓韻草小韻의 慄字 아래에 수록하였다. 한편 『集韻』은 皓韻草小韻(采早切)의 ‘燥’에 대하여 “『說文』, 愁不安也. 引詩‘念子燥燥’라 풀이하고, 같은 소운자인 ‘慄’에 대하여는 “『爾雅』, 慄慄老也. 一曰愁也”라 풀이하였다. 『광운』·『예부운략』·『집운』은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운서로서 긴밀한 연관을 갖지만 훈석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퇴계가 인용한 ‘대광익회’의 훈석과 운자배열 방식은 그 가운데서도 『광운』의 그것과 일치한다.

『광운』(『대송중수광운』)은 『切韻』을 이은 것으로서, 같은 시기에 나온 『예부운략』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운서다. 그러나 이 『광운』은 207부로 韻目을 나누어 分韻이 번다한 까닭에 平水 劉淵의 107부 분운 이후로는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청나라 초에 이르러 顧炎武가 內府刊本을 저본으로 복각하고 표장한 이후에야 주목받게 된다. 물론 『광운』의 註音과 訓釋은 『고금운회거요』에 일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황이 『고금운회거요』를 열람하여 『광운』을 인용하였을 수도 있다.<sup>17)</sup> 그러나 퇴

17) 『고금운회거요』 30권은 1398년(태조 7)에 覆元板本이 나오고, 1434년(세종 16)에

계의 인용 방식으로 보아, 조선에는 퇴계 당대에 『광운』 단행본이 유전하고 있었던 듯하다. 다만 그가 어째서 『광운』을 ‘대광익회’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

퇴계는 『광운』의 小韻字 音을 ‘本音’으로 들 만큼 『광운』을 중시하였다. 퇴계는 『광운』의 반절음을 근거로 한국한자음을 추정하려 함으로써 주희의 주음과는 상이한 추정음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南有嘉魚」편 “罩罩”의 罩字를 ‘도’라고 주음한 예가 그것이다. 주희는 이 글자를 張教反과 竹卓反의 2음으로 읽었는데, 『광운』에는 都教切(效韻罩小韻)의 1음뿐이다. 퇴계는 『광운』에 근거해서 ‘도’의 1음만 추정한 듯하다.

퇴계는 한자음 추정에서 『광운』의 반절음을 근거로 하였으나, 『증운』이나 『고금운회거요』, 『洪武正韻』(그리고 『홍무정운역훈』) 등 상세한 주가 붙은 운서들과 상호 대조하지 않아 한자음과 訓을 잘못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를 테면 召南 「標有梅」의 “頃筐篚之”에 주희가 “篚, 許器反”의 음주를 붙인 것에 대하여 퇴계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 篚, 生員金繼趙所藏『釋義并考字音』, 篚字註云, 禮계, 俗同. 禮謂『禮部韻』也. 此字今俗固音계. 然今按『大廣益會』, 眞部, 其冀切, 則實音기, 與洎暨等字同, 而俗皆訛音계.

김계조 소장의 『석의병고자음』이 인용한 ‘예부운’이 『예부운략』 가운데 어느 텍스트의 音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퇴계가 ‘대광익회’를 인용하여 “眞部, 其冀切”이라 한 것은 『광운』의 至韻 臯小韻(其冀切)의 음을

---

密陽刻本이 나왔으며, 세종 때 『東國正韻』 편찬에 참고로 활용되었다. 1574년(선조 7) 이전에 다시 覆元板本이 再刊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대 晚松文庫本에 “甲戌秋印來漢陽. 此七字外王父筆. 天啓元年仲春識”라는 墨書識가 있으므로 그 사실을 추측케 한다. 조선 인조 연간에는 李植의 발문이 붙은 판본도 나왔다. 1883년(고종 20)에 淮南書局에서 간행한 간본도 있다.

가리키며, 寘部(去聲第五)는 至部(去聲第六)의 잘못이다. 운목의 순서상 제6부를 열람하면서 제5부의 운목명을 끌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泊·𪔐는 모두 泉小韻에 속해 있다. 『광운』은 이 𪔐字를 至韻泉小韻(其冀切)과 去聲 未韻歛小韻(許既切)의 2음으로 읽었는데, 『시집전』의 ‘許器反’은 未韻의 음에 대응한다. 『광운』은 至韻의 글자에 “息也. 又仰塗也”라 주하고, 未韻의 글자에 대하여는 ‘仰塗’라고만 주하였다. 퇴계는 至韻의 반절과 혼만 든 것이다. 하지만 『증운』을 보면 至韻 글자와 未韻 글자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즉 至韻泉小韻(巨至切)의 자는 ‘仰塗’의 뜻이고, 未韻歛小韻(許既切)은 ‘仰塗’의 뜻 외에 ‘取’의 뜻과 ‘息’의 뜻을 지닌다. “頃筐𪔐之”의 𪔐字는 ‘取’의 뜻을 지니므로 未韻歛小韻字이어야 한다.

𪔐字는 『고금운회거요』나 『홍무정운』에서도 같은 식으로 의미분화가 표시되어 있다. 즉 『고금운회거요』는 그 글자를 寘韻芟小韻(奇寄切)과 未韻歛小韻(於既切)의 2음으로 읽었고, 『홍무정운』은 거성 寘韻 芟小韻(奇奇切)과 寘韻 戲小韻(許意切)의 2음으로 읽었는데, 두 음에 대하여 『증운』처럼 의미분화를 명시하였다. 『홍무정운역훈』은 전자를 群母의 [·끼]음으로, 후자를 曉母의 [·히]음으로 표기하였다. 曉母는 한국한자음에서 [k-]로 읽히기도 하지만 『광운』과 『증운』, 『고금운회거요』, 『홍무정운』등으로 볼 때 𪔐字는 본래 2음으로 破讀)되던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이 ‘𪔐’를 속음이나 퇴계 추정음이 모두 1음으로 처리한 것은 이 글자에 群母音과 曉母音의 두 음이 있고 그에 따라 의미변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퇴계는 『광운』의 음주와 소략한 훈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전본의 음주를 잘못 이해하기도 하였다. 주남 「汝墳」편의 “怒如調飢”와 관련하여 주희의 신주에 대한 대전본 음주를 검토하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 輜飢, 重飢 ㄷ호라. 一云, 다시곰飢 ㄷ호. 按, 重字去聲者, 訓更爲, 則當從後說. 若本註韻書所訓重載, 是輕重之重, 當云, 重히飢 ㄷ호다.

“怒如調飢”의 調字를 『毛傳』은 ‘朝’로 풀이하였으나, 주희는 “調, 一作輜”라 하고 輜字를 다시 ‘重’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대전본은 신주의 이 ‘重’자에 去聲이라고 주음하면서, 동시에 『광운』의 ‘輜, 重載也’를 인용한 羅中行의 주를 小註로 실었다. 퇴계가 말한 ‘本註’는 이 羅氏註를 가리킨다. 그런데 퇴계는 『광운』에 의거하여, 去聲重字는 ‘更爲’의 뜻이고 ‘重載’의 뜻으로 풀이한 것은 모순이라고 보았다. 重字는 현재의 普通話에서 제2성일 때 ‘更爲’의 뜻이고 제4성일 때 輕重의 重이란 뜻으로 사용되므로 대전본이 重載의 重字를 거성이라 주음한 것은 『광운』 이후의 현실음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본의 음주는 결코 현실음을 취하지 않았다. 대전본은 『증운』이나 『홍무정운』의 음주 방식을 따라서 ‘輜=重載之車=輜重’의 重字에 대하여 거성으로 주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광운』의 주음을 참고로 하였기 때문에 거성 重字에 輜重의 뜻이 있음을 분별해 내지 못하였다. 퇴계는 거성 重字는 ‘更爲’의 뜻을 지니므로 소주에서 말한 ‘重載’(퇴계는 重을 輕重之重의 뜻으로 오해하였다)와는 모순된다고 여겼다.<sup>18)</sup>

2-2. 시편의 자구 해석에서는 語辭의 詞性を 정하는 일이 문제된다. 이를테면 衛風 「伯兮」편의 “自伯之東”에서 之字는 동사인가? 조사인가?

- 自伯之東, 伯이東호모로브터. 或以之字爲가다, 非.

18) 참고로 교정청 언해본을 보면, 輕重之重과 再重之重(更爲之重)은 주음상의 차이가 없되, 『증운』의 평성 東韻重字(重穆之重)의 용례인 豳風 「七月」 “黍稷重穆”의 重字에 대해서만은 ‘종’으로 破讀하였다. 이 重字는 현재 普通話에서는 『正字通』의 ‘徒紅切’을 이어 [tóng]으로 발음된다.

『毛詩』는 「伯兮」편을, 衛나라 宣公이 왕(천자)을 따라 鄭을 정벌한 고사에 연결시켰다. 孔穎達의 『疏』(『正義』)는 鄭이 衛의 서남에 위치하는데도 ‘東하다’라 한 것은 衛가 蔡·陳과 함께 일단 서울에 모였다가 동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부연하였다. 東字를 동사, 之字를 조사로 보는 것은 이에서 비롯된다. 시편에서 之字가 동사로 쓰인 예로는 『鄭箋』에 의하면, 소남 「何彼禰矣」, 「王姬之車」와 魏風 「碩鼠」, 「誰之永號」의 둘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예를 신주는 모두 조사로 보았다. 또 『정전』은 “適, 之也”(「叔于田」, 「叔適野」, 「有杙之杜」, 「噬肯適我」의 箋)라 하거나 “逝, 之也”(「小弁」, 「無逝我梁」, 「何人斯」, 「胡逝我梁」의 箋)라고 하여 ‘之=逝=適’의 호응관계를 밝혔지만, 之字가 동사로 사용된 것은 시편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퇴계는 『시집전』의 설을 따라 之字를 조사로 보았다.

퇴계의 『시석의』는 이중부정 구문, 즉 無指代名詞의 無나 莫을 이용한 구문<sup>19)</sup>을 해석할 때 각별히 주의하였다. 소아 「谷風」편 “無草不死”의 자구해는 다음과 같다.

- 草 | 死티아니히리업스며, 末同. ○ 死티아니홀草 | 업스며. 按, 此於詩本語及傳文, 皆協而平順. 但如此, 則草木盡爲死萎以比小怨之義, 似爲不倫. 又方春風被物之時, 無盡死盡萎之理, 亦爲未穩. 故有變其說者. 一云, 草 | 死히리업디아니히며, 一云, 死히草 | 업디아니히며. 按, 此二說同一意也. 蓋言, 其間不能無死萎之草木, 以比不能無小怨之義, 甚好. 但無不者, 盡辭也. 不無者, 就中或有之辭也. 兩字一上一下, 其義頓異, 其不可以無不爲不無, 決矣. 今此兩句及傳文, 皆先無後不. 說者欲變作先不後無之義, 雖於語意似合, 其文理之倒舛甚矣. 是不恤文法, 徒就句綴字以隨己意, 豈說經之道乎? 故愚竊恐只從前說爲長也. 夫風之於山, 被者至廣, 非獨草木也. 故以比大德焉. 就中草木, 雖同被春風, 而其終無不死萎, 草木有時而死萎云爾, 非謂方春而死萎也. 故以是比小怨. 如此而讀,

19) 楊伯峻, 『文言文法』(中華書局, 1972初, 1982 重版)의 용어.



豈不文理順而無苟且牽合之病乎? 先儒所見亦必有如此, 故有前說, 非愚之創說也. 但今世率皆堅持後說, 以壓前說, 使又得行, 故力爲之辨焉. 又按, 如必以前說爲不可, 而欲用後說, 則其釋之之辭, 當曰, 草 | 死티아니 흙이엿스며, 木이 萎티아니흙이엿스니. 言, 雖當此時, 亦無草必不死之理, 亦無木必不萎之理, 謂猶有死萎者也. 如是則稍合於文義, 但於傳文終不叶耳.

「곡풍」은 구주에 의하면 幽王 때 풍속이 각박하여 朋友之道가 끊긴 것을 풍자한 시다. 『시집전』은 유왕 때라고 한정하지는 않았으나, 역시 봉우가 서로 원망하는 시로 보았다. 3장의 “習習谷風, 維山崔嵬. 無艸不死, 無木不萎. 忘我大德, 思我小怨”을 두고, 『모전』·『시집전』과 『鄭箋』 사이에 제3-4구의 해석방식이 다르다.

毛傳：“雖盛夏萬物茂壯，艸木無有不死葉萎枝者。”

集傳：“習習谷風，維山崔嵬，則風之所被者廣矣。然猶無不死之草，無不萎之木。況於朋友其可以忘大德而思小怨乎？”

『모전』과 『시집전』은 “無不死草，無不萎木”을 이중부정=전면긍정 구문으로 보고, 초목이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성이, 봉우간에 작은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당연성을 비유한다고 해설하였다.

鄭箋：“東風生長之也，山巔之上猶及之。然而盛夏長養萬物之時，艸木枝葉猶有萎枯者，以喻朋友雖以恩相長養，亦安能不時有小訟乎？”

『정전』은 “無艸不死，無木不萎”를 부분부정=일부긍정 구문으로 보고, 盛夏에도 시들어 죽는 초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봉우간에 작은 원망이 있을 수 있음을 비유하는 것으로 해설하였다.

퇴계가 인용한 舊 언해는 『모전』이나 『시집전』처럼 그 두 구를 이중부정

문으로 보았으나, 봄바람이 불 때 초목이 모두 시들어 죽는다는 사실이 작은 원망이 있을 수 있음을 비유한다고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해당 구를 일부긍정으로 해석하는 두 번째 설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정전』의 설과 일치한다. 퇴계는 이 구문을 이중부정=전부긍정의 문법으로 보고, 초목이 언젠가는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성이, 봉우 사이에 때로 작은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성을 비유한다고 보았다. 다만 『시집전』의 주는, 봄바람이 부는 때에 초목이 모두 시들어죽기 마련이라고 본 듯도 하다. 퇴계는 舊언해가 『시집전』의 뜻에 걸맞다고 결론을 유보하였다.

한편 무지대명사 ‘莫’을 이용한 구문의 해석에서 퇴계는, 莫字를 최상급 비교의 언사로 보는 독법을 고수함으로써 언해에 무리를 넣었다. 邶風「北風」의 “莫赤匪狐, 莫黑匪烏”에 관한 논술을 예로 들어 본다.

- 이만赤<sup>ㅎ</sup>니업스니狐 | 아니며, 今按, 此說是. 猶言莫高匪山之類, 言所見皆赤狐·黑烏也. 說者, 因所見無比此物之語, 鑿爲曲說曰, 赤디아니타狐 | 아니며. 其意猶曰, 雖非赤者而不爲狐乎, 言皆狐也. 此說巧, 然非文法何? 又有因此說者曰, 赤티아닌거시狐 | 아니며, 或云, 赤<sup>ㅎ</sup>거시狐 | 아니며, 皆不成文理.

小雅「小弁」의 “靡瞻匪父, 靡依匪母”는 靡字를 무지대명사로 하는 이중부정 구문인데, 퇴계는 靡字를 莫字와 같은 최상급비교의 어사로 풀이함으로써 언해에 무리를 가져왔다. 참고로, 교정청 언해본은 이황이 배격한 ‘赤디아니타狐 | 아니며’를 취하였다.

한편 퇴계는 ‘語辭不釋’의 원칙을 세웠다. 그 예는 斯·有·于·止·云·維·聿·蓋·言·曰 등등이다. 여기서는 번다함을 피하여 曰字의 예만 든다.

- 桑扈之什「魚弓」, “見睨曰消” 睨을見호면. 曰, 不釋.
- 文王之什「大明」, “曰嬪于京…聿懷多福”, 曰, 聿, 不釋.
- 文王之什「綿」, “曰止曰時”, 이에 止호야. 兩曰字, 不釋.

曰字와 聿字의 어사 용법에 대하여는, 청나라 錢大昕의 『十駕齋養新錄』(권1)에 「曰與聿通」이라는 논문이 있다. 전대훈은 「칠월」편의 “曰爲改歲”의 曰字가 『한서』 「食貨志」에 聿로 되어 있는 예 등을 들어, 曰과 聿이 통한다고 논하였다.<sup>20)</sup>

퇴계는 위풍(衛風) 「竹干」의 “豈不爾思, 遠莫致之”에 대하여 “爾字, 不說”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전』은 이 구절을 “我豈不思與君子爲室家”로 풀이하였고, 孔穎達의 『疏』(『正義』)는 그것을 부연하여 “爾君子”라고 보충하였다. 이에 비하여 『시집전』은 “思歸寧而不可得”이라고 하여 爾字를 새기지 않았다. 퇴계는 『시집전』을 따라서 爾를 虛字로 보았다. 이러한 예에서, 퇴계가 시편의 어사를 판별할 때 『시집전』의 설에 충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 퇴계는 시편을 주해할 때 원칙적으로 주희의 신주에 충실했다. 패풍 「곡풍」 “何有何亡, 黽勉求之”를 해석하면서 퇴계는 『소』를 인용하였으나, 그것은 대전본 小註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또한 그것도 신주의 의리론을 지지하는 방증으로 들었다.

- ㅁ스거시이시며ㅁ스거시업느뇨호야, 此家之有無也. 어디이시며어디업슨고호야, 此他處之有無也. 又云, 雖有亦欲得之. 今按, 兩說皆非也. 當云, ㅁ스거시이시며ㅁ스거시업스리오호야. 蓋註云, 不許其有與無, 而勉強以求之. 此言, 事有當爲者, 不問家之有無而惟求其事成也. 何有何無, 非謂

20) 說文, 吹, 詮詞也. 引詩吹求厥寧, 今之毛詩作遙, 遙聿, 同音. 曰卽吹之省文也. (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 所藏 潛研堂全書 子 所收 『十駕齋養新錄』)

何物有之何物無之，亦非謂何處有之何處無之，但謂何物以爲有乎何物以爲無乎之意。夫有則爲之，無則不爲，非勉強者也。今此婦人，有亦勉，無亦勉，以求成其事，可見其善於事夫，而勞於治家也。若如說者之言，是屑屑然計有算無，問東乞西之爲事，乃一貪煩猥賤之婦耳，何賢之足稱乎？又云，求非求得此物之求，猶所謂功求成之求，故孔氏亦云，隨事難易，期於必成。

『모전』은 有를 ‘富’, 亡를 ‘貧’이라 풀이하었다. 『정전』은 “君子何所有乎，何所亡乎。吾其黽勉勤力爲求之。有求多，亡求有”라고 하여, ‘有亡’를 군자의 빈부로 보았다. 『소』는 “於君子之家，財業何所富有乎，何所貧富乎。不問貧富，吾皆勉力求之”로 부연하여, ‘何有何亡’를 ‘不問貧富’의 뜻으로 보았다. 新註는 “不計其有與亡，而勉強以求之”로 풀이하어 『소』와 같다. 대전본은 신주 아래에 『소』를 “隨事難易，期於必成。不問貧富，吾皆勉力求之”의 형태로 실었다. 퇴계는 신주에 충실하였으며, 『소』를 대전본에서 인용해 왔다.

주남 「관저」편에 관한 다음 논의에서 퇴계는, 신주와 대전본 인용의 『주자어류』 설을 참고로 하면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 乘居，四居，匹處，獨處也。

“關關雎鳩，在河之洲”에 대하여 『시집전』은, “雎鳩…生有定偶而不相亂。偶常竝遊而不相狎。故毛傳以爲摯而有別”이라 주하고, 『列女傳』의 “人未當見其乘居而匹處”로 인증하였다. 『주자어류』에 따르면 주희는 다시, “乘居是四箇之同居也”라고 부연하였는데, 대전본은 乘字에 上聲이라 주하였다. 『시집전』과 『주자어류』는 ‘乘居而匹處’를 하나의 연결된 관념으로 파악한 셈이다. 하지만 퇴계는 ‘乘居’와 ‘匹處’를 대립개념으로 파악하여 『모씨전』의 ‘摯而有別’의 해석에 충실하였다.<sup>21)</sup>

퇴계의 『시경석의』는 구문을 분석하거나 『시집전』의 주를 해석할 때에 구문 자체의 구조에 주목하기보다도 의리론의 선형적 전제를 입론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테면 小雅 「沔水」편의 주어-빈어를 확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퇴계는 『시집전』을 따르면서도 의리의 뜻을 더욱 중시하였다.

- 우리友를 敬ᄃᆡ면. 一云, 우리友호믈. 一云, 我 | 友 | 敬ᄃᆡ면. 今按, 傳言始憂於人而卒反諸己, 故上二說如此. 然詳究此詩, 上文言嗟我兄弟邦人諸友莫肯念亂. 是固憂諸友之遭亂, 而不念所以致亂之故矣. 於此又爲諸友謀之曰, 我友能自反而以敬自持, 則讒亂何自而興乎? 是卽所謂反諸己耳, 實非謂詩人之反己也. 若如二說, 爲詩人自反諸己, 則傳何以曰, 我之友誠能敬以自持矣云云乎? 蓋亂世讒賊之禍, 根連條逮, 朋友義均同體, 友之禍, 卽己之禍, 友之憂, 卽己之憂. 故始冀友念亂, 而憂所以弭亂, 卽憂於人也. 終勸友反己, 而謀所以息讒, 卽反諸己也. 讀者以是認詩人忠厚懇側之意, 則(足\*)矣. 若遂變我友敬本意, 解作吾敬友之道看, 則非傳意也. 當從後一說.

이 시편에 대하여 『정전』은 『모전』을 따라, 宣王을 規諫하는 시라고 보아, ‘我’를 ‘天子’, ‘我友’를 ‘諸侯’로 보았으며, ‘敬’을 “그 직분을 경건히 수행한다(敬其職)”고 풀이하였다. 『시집전』은 구설을 따르지 않고, 이 시를 ‘난리를 근심하는(憂亂)’ 시로 보고, ‘我’는 시인, ‘我友’는 시인의 친구(聽者)로 보았다. 그래서 “我友敬矣”의 구는 “나의 친구가 정말로 공경하여 스스로를 견지한다면 讒言이 어느 곳에서부터 일어나랴?”라는 의미라고 보아, “스스로를 반성한다(反己)”는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시집전』의 설을 부

21) 『徐氏筆精』(碧琳琅館叢書 丙部 所收)에 의하면 『列女傳』의 ‘乘居’는 ‘乖居’의 誤字라고 한다. “淮南子, 關雎興於鳥, 君子美之, 爲其雌雄不乖居也. 乘居宜作乖居. 於義尤得.” 하지만 이 시구의 해독은 雎鳩의 성질 및 그 비유의 의미를 고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연하였다.

2-4. 그런데 퇴계는 경문의 해석에서 소학 혹은 장구지학의 방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한 예로 소아 「十月之交」편의 “噂沓背憎, 職競由人”의 언해와 관련된 다음 논의가 있다.

- 噂 ㅎ며 沓 ㅎ다가 背 ㅎ안憎호미, 전혜競호문人을 由 ㅎ애니라. 按, 此說是也. 或云, 噂 ㅎ안 沓 ㅎ며, 此說非也. ○ 전혜힘써 ㅎ는 人으로 말미사매니라. 전혜힘써 ㅎ는 人으로 말미사매니라. 今按, 此兩說迂晦難通. 然其意, 以謂 噂沓之人即 讒口之人, 非有異也. 而曰, 專力爲 噂沓者, 由於 讒口之人, 以爲 無義, 故遷就其說, 欲以 專力爲此之人爲 由人之人. 然奈詩之本語及傳文, 明是各人, 豈可強而合之乎? 況亂世小人滿朝, 互相讒毀, 傾軋怨詈, 豈無比之 噂沓由於彼之 讒口者乎! 不可鑿爲他說也.

『모전』은 “職, 主也”라 하였다. 『정전』은 그것을 부연하여 “噂噂沓沓하게 상대하여 談語하여, 배치하면 곧 서로 미워한다. 좃아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주인)에의할 따름이다”라고 하면서, 人=主人=皇父로 보았다. 『시집전』은 이 시편과 皇父와의 관련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職은 主, 競은 힘써 행함이다”라고 풀이하고, “噂噂沓沓하게 多言으로 서로 말하지만, 등지면 곧 서로 미워한다. 專力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모두 讒口의 인물에 의한다.”라고 하였다. 퇴계는 『시집전』의 뜻을 부연하면서, ‘噂沓’이 생겨나는 것은 ‘讒口之人’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세태 비판의 의식이 저변에 놓여 있다.

### 3. 조선전기 시경학의 흐름과 퇴계 「시석의」의 위치

詩篇이 본래의 사회적 맥락과 분리되어 경전으로 되고 四家詩가 성립한

이후, 시경학은 『毛詩傳』, 『鄭箋』, 『疏』(正義), 『詩集傳』(朱熹의 新註), 청의 고증학적 연구와 三家詩의 재발굴이 시대별로 전개되어 왔다. 근대 이후로는 시편이 지닌 제레민속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마셀 그라네(Marcel Granet)의 방법론이 활용되고, 金文 연구의 성과도 원용되었다. 이로써 시편을 경전으로 보는 舊 시경학의 전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고전 학문이 다 그러하듯, 구 시경학은 앞서 사람의 해설에 뒤사람이 새 해설을 덧붙여가는 형태를 취하여, 그 덧붙임 속에 각 시대의 지식이 집약되어 왔다.

근대 이전의 경학사만 보면, 시경학은 크게 漢學과 宋學이 대립되어 왔다. 즉 漢代에 금문가인 三家와 고문가인 毛氏가 각기 관학과 민간학으로 길항하다가 毛詩가 세력을 얻은 뒤, 당나라 貞觀 때 공영달이 칙명을 받아 『毛詩正義』를 편찬함으로써 『모시서』·『傳』·『箋』·『疏』가 일체화된 ‘毛鄭之學’이 관학으로 공인되었다. 그 뒤 송대에 詩序를 회의하는 이설이 나와, 주희는 시서의 美刺說이 지닌 오류를 비판하고 『詩集傳』과 『詩序辨說』을 저술하였다. 주희의 시경론은 원나라 延祐 때 관학으로 공인되었다. 하지만 원·명·청에 걸쳐 宗朱·反朱·折衷의 논쟁이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3-1. 조선에서는 세종 때 명나라 영락제 칙찬의 『四書大全』과 『五經大全』을 覆刊해서 반포함으로써, 이후의 경학은 주자학설의 정밀한 이해를 주요 과제로 삼게 되었다.<sup>22)</sup> 곧, 조선전기의 경학은 대전본의 本註(주희의

22) 그 가운데 『四書大全』은 元의 倪士毅가 胡炳文의 『四書通』과 陳櫟의 『四書發明』을 취하여 訛謬를 刪定해서 한 책으로 만든 『四書輯釋』을 토대로 한 것이되, 그 詳略이 『大學或問』·『中庸或問』보다 못하고 舛誤가 아주 많았다. 하지만 『大全』이 學官에 반포된 뒤로 조정의 取士나 塾師의 가르침이 모두 『大全』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輯釋』이 다시는 행하지 않게 되었다.

신주)와 小註(주희의 혹설, 『주자어류』설, 주희 이후 주자학자의 설)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여 정설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퇴계의 경설은 그러한 전개발전의 극점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시』삼백을 경으로 보아, 중국 시경학을 참조하면서 나름대로 독자적 해설을 시도하여 왔다. 세종 때 『시전대전』이 공식 텍스트로 채택된 이후로 주희의 新註 및 대전본 小註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시경학의 중심과제로 되어, 경문의 懸吐諺解가 추진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퇴계의 『시석의』와 교정청의 『詩經諺解』는 그러한 작업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조선의 유학자 가운데 경학에 관한 전문 저술을 남긴 인물은 權近이 처음이다. 그는 『五經淺見錄』을 저술하여 오경에 대한 諸家の 설을 심리하고 獨見을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詩淺見錄」은 19칙에 불과하지만, 『시경』의 제작시기와 작자, 刪詩說·正變說·美刺說·淫詩說 등 시경학의 중심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권근은 주희의 『시집전』의 설을 검토하되, 『시집전』의 편차 순서를 완정한 체제로 파악하였다. 『시천견록』의 저술 목적과 방법은 「關雎」와 「葛覃」편에 대한 詩說에 잘 나타나 있다.<sup>23)</sup> 권근은 『毛詩詁訓傳』(『모시』 혹은 『모전』) 「小序」의 설을 계승한 『시집전』

23) 朱子集傳, 於關雎, 以爲后妃性情之正可見其一端, 詩人性情之正可以見其全體, 於葛覃, 引小序以爲后妃之本, 則似於葛覃爲重. 又以爲關雎舉其全體而言, 葛覃·卷耳·樛木·螽斯, 皆指其一事而言, 則又以關雎爲重. 且前則以關雎爲后妃之性之一端而詩人之全體, 後則以爲后妃之全體, 其言前後不同, 何也? 關雎, 泛言后妃之德宜配君子, 葛覃, 后妃所自作, 可見其德之實. 其所以宜配君子者, 以其有是德也. 故小序以爲后妃之本. 然葛覃勤於修婦職, 卷耳專於事君子, 樛木惠及於衆妾, 螽斯慶流於子孫, 是皆指其德之一事也. 關雎不偏主於一事, 而總言以美之, 是舉其德之全體而言之也. 若因雎鳩摯而有別, 可見后妃性情之一端者, 朱子特言本篇之餘意耳. 至詩人則極其哀樂, 而皆不過其則焉. 以哀樂之具, 而可見性情之全體也. 集傳前後互相發明, 無餘蘊矣.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년 영인 『五經淺見錄』 「詩淺見錄」 「詩說」)



의 설에 따라 편차를 논하였다. 즉 권근은 「관저」편이 후비의 덕을 개괄적으로 말하고 「葛覃」·「卷耳」·「南有樛木」·「螽斯」는 후비의 덕이 드러난 사실을 각각 한가지 씩 찬미한 것이거늘, 「관저」편에 대한 주희의 주에서 '후비 성정의 바름(后妃性情之正)의 一端'을 볼 수 있다 하고, 도리어 「갈담」편에 대한 주에서 『모시서』를 인용하여 '后妃의 本'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반문하였다. 이 가상의 질문에 대하여 권근은, '후비의 본'이 '후비의 전체(후비 성정의 전체)'라는 뜻이 아니라, 후비가 군자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근본이란 뜻이라고 재해석하였다. 「葛覃」의 小序에 대한 공영달의 『소』(『정의』)는 '후비의 본'을 '후비의 본성(后妃之本性)'이라 풀이하였으나, 권근은 『소』를 참고로 하지 않고 『시집전』의 해석을 전후 참조하여 그렇게 풀이한 것이다.<sup>24)</sup>

권근은 시편을 해석할 때 『시집전』의 설을 수용하면서 그 뜻을 더욱 부연하였다. 齊風 「南山」편에 대한 해석은 그 일례로, 이른바 刺詩에 대한 권근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sup>25)</sup> “남산이 우뚝하여라, 수컷 여우는 어슬렁 대누나(南山崔崔, 雄狐綏綏)”로 시작되는 「남산」은, 「毛詩序」나 『시집전』 모두 齊나라 襄公을 풍자한 시로 풀이하였다. 『시집전』은 “남산에 여우가 있다고 말하여, 양공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邪行을 저지르는 것을 比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시집전』은 『좌전』의 기록을 인용하여, 「남산」의 후 2장은 노환공을 풍자한 것이라고 보았다.<sup>26)</sup> 그런데 「남산」편의 刺

24) 또한 권근은 自說을 더욱 보강하기 위하여, 주희가 睚鳩의 '摯而有別'로 '후비 성정지정의 일단'을 설명한 사실을 반대논거로 보지 않고 '特言本篇之餘意'라고 축소시켰다.

25) 齊襄文姜鳥獸之行, 甚於衛宣攘其子婦, 詩人鄙之以狐稱焉. 其卒不免無知之弑, 不善之報, 昭(昭)明矣. 衛之滅在於後世, 齊之禍及於其身, 其惡甚則其禍愈促, 齊不遂滅, 亦其幸矣. 詩可以觀, 此亦讀詩者尤當所知者也. 衛有定之方中·載馳等篇, 可知其國之滅, 集傳又發明之. 齊有南山·敝笱甚醜之詩, 無知之事, 不見于經, 集傳亦不及言, 但記魯桓薨于彭生之車而已. 初學徒見襄公醜惡之行, 不知天道禍淫之理如此之明, 吾夫子刪詩垂戒之意, 或幾乎泯矣. 故僭及而著之.

法과 『시집전』의 발명은, 衛風 「定之方中」·「載馳」의 예와 다르다. 「정지방중」과 「재치」에서는 위나라懿公이狄人에게 죽임을 당하고 위나라가 멸망한 사실이 시편 속에서 언급되어 있고, 『시집전』도 그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sup>27)</sup> 그러나 「남산」의 경우는 시어 속에 풍자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권근은 제나라 양공이不善해서 公孫無知의 난이 일어나 살해되었다는 사실(『좌전』 莊公 8년)을 거론하여, ‘천도가 음란한 자들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는 매우 분명하다’라는 교훈을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였다.

권근은 시편의 해석을 정치교화론에 연결시켜, 군주를 위한 풍간의 뜻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조선시대 경연에서 『시경』이 종종 진강되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경연에서 사대부들은 특히 시편의 해석을 정치적 이념이나 실제 정치와 연결시키고는 하였다. 예를 들어 성종 3년 9월 9일(임인)의 경연에서 검토관 成俔은 「葛藟」편과 「中谷有蓷」편을 연결시켜, ‘백성을 부려 근실하도록 시키면서 백성에게 취하는 것을 두텁게 함(使民也勤, 取民也厚)’을 경계하고, 豪强者의 과도한 私債 징수와 토지 겸병을 억제하라는 계책을 올렸다. 이러한 예는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퇴계도 『시경』에 대한 논의에서 시편의 해석을 당대 문제에 연결시켜 논

26) 제나라 양공이 누이 文姜을 魯桓公에게 시집보낸 뒤 그 문강과 간통하였다는 고사가 『좌전』 환공 3년의 기록에 나온다. 그런데 「남산」의 시는 제1장에 “노나라로 가는 길 이 평탄하여라, 제나라 공주가 그 길로 시집을 갔도다. 이미 시집갔거늘, 어이하야 그리워하나(魯道有蕩, 齊子由歸. 既曰歸止, 曷又懷之)”라고 하였다. 굳이 해석하자면, 양공이 문강을 그리워하는 정념만 담겨 있다. 『시집전』도 제양공의不善한 행실을 지적하였지, 應報의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단, 『시집전』은 『춘추』가 文姜의 음행을 防閑하지 못한 노환공을 貶罪했다고 환기시켰다(‘公與夫人姜氏如齊’의 ‘與’字에 貶謫의 뜻이 있다고 武夷胡氏는 논하였다). 『좌전』 환공 18년에 보면, 노환공이 문강을 데리고 제나라에 가자, 문강이 제양공과 간통하였다. 제양공은 公子彭生을 시켜 환공의 수레에 타게 하였는데, 환공이 그 수레에서 죽었다(‘薨于車’).

27) 『좌전』 閔公 2년에 보면, 衛의懿公은鶴을 좋아하여 학을 대부의 수레인軒에 태우기까지 하여, 적인이 침략하였을 때 國人들이 모두 ‘祿位가 있는 학을 부릴 것이지, 내가 어찌 싸우랴’ 하면서 도망하였다고 한다.

하는 의리지학의 전통을 이었다.

3-2. 조선전기의 시경학은 다른 경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려 말 이래의 전통을 이어서 경서에 口訣을 붙이고 諺解하는 작업을 병행시켰다. 이것은 元에서 한문 문헌을 直解하였던 사실에 비견할 수 있으니, '이민족'이 漢籍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지속적인 현토·언해 작업의 결과, 일단 선조 연간에 이르러 교정청 諺解本이 성립하였으나, 그 후로도 經筵에서 수시로 토와 언해가 수정되었다.

1428년(세종 10) 윤4월 18일(기해) 일자의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sup>28)</sup> 권근에게는 『시』·『서』·『역』의 토가 있었다고 한다. 또 1465년(세조 11) 11월 12일(병진)의 『실록』 기사에는, 세조가 예조에 명하여 조선의 선유가 찬정한 '사서오경구결'과 정몽주의 '詩口訣'을 구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정몽주에게도 '詩口訣'이 있었던 것이다.<sup>29)</sup> 또 徐居正은 崔恒의 묘지명에서, 세종이 金汶·金鉤·崔恒을 시켜 『小學』과 사서오경의 구결을 제정토록 하여, 자신도 후진으로 참여했다고 하였다.<sup>30)</sup> 집현전의 현토 제정은 완료되지 않은 듯하지만, 그 일부가 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466년(세조 12) 2월 9일(신사)의 『실록』 기사에 보면, 그 무렵에 사서

28) 上於卞季良曰, “昔太宗命權近著五經吐, 近讓之不得, 遂著詩書易吐, 唯禮記·四書無之. 予慮後學或失本意, 以訓諸生. 若因此而教, 豈不有益?” 季良對曰, “近尙讓之, 况小臣乎? 四書, 臣於幼時學之, 禮記則本不學. 且禮記, 文多瑣屑, 而意亦旁通, 不可執一以定. 先儒亦言, 禮記, 漢儒掇拾煨燼之餘, 語多未詳, 似難考定.” 上曰, “然.” 右議政孟思誠曰, “有吐, 則臣恐學者, 不著力研究.” 上曰, “程朱亦慮學者未達經書奧旨, 故著註解, 令其易知. 外方教導, 若因此誨人, 則豈無補乎?” (『世宗實錄』 권40, 10년 윤4월 18일 기해)

29) 驛召尙州使金鉤. 鉤爲尙州未半年. 時集賢殿奉教, 以諺文譯四書, 直提學金汶主之. 汶死, 集賢殿薦鉤, 故特召之. 尋拜判宗簿寺事.

30) 『四佳集』文集 補遺 권1 「崔文靖公碑銘」. “英陵命臣金汶·金鉤及公等定小學四書五經口訣, 居正亦與其後.”

오경만 아니라 『左傳』에 이르기까지 구결을 제정하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sup>31)</sup> 최항의 기록에 따르면, 『시』는 鄭麟趾, 『서』는 鄭昌孫, 『예』는 申叔舟, 『논어』는 李石亨, 『맹자』는 成任, 『대학』은 洪應, 『중용』은 姜希孟이 담당하였다.<sup>32)</sup> 별도로 『소학』의 구결은 세조가 친히 정하였다고 한다. 이 구결에 대하여 丘從直, 金禮蒙, 鄭自英, 李永根, 金壽寧, 朴槿 등이 논란 교정하였으며, 중요한 결정은 세조가 하였다고 한다.

그 뒤 종종 연간에 이르러 柳崇祖가 경서 구결을 정하였는데, 그것은 선조 때까지 권위를 인정받았다. 1574년(선조 7) 10월 25일에 구결 개정의 왕명을 받은 유희춘은, 사람들이 비록 유송조가 정한 경서의 토를 새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가 정한 『상서』토를 보면 왕왕 틀린 곳이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유송조의 경학은 그의 사후 도학파에 의하여 ‘章句之學’이라고 비난받았으나,<sup>33)</sup> 경연의 진강에서 그의 경서 구결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선조 연간의 현토언해는 당초 유희춘에 의하여 추진되다가, 뒤에 교정청이 설치됨으로써 언해본 편찬이 재개되었다. 『미암일기초』(권14)에 수록된 1574년(선조 7) 10월 10일의 기사를 보면,<sup>34)</sup> 유희춘은 사서오경의 구

31) “召諸書口訣校正郎官講論，初定口訣者與校正者，交相問難，負者罰之以酒。先是，分命宰樞，出四書五經及左傳口訣，又使諸儒臣校正。” 그보다 앞서 1465년 11월 12일(병진)에 본국 선유의 ‘사서오경구결’을 널리 구하라는 왕명이 내린 사흘 뒤인 11월 15일(기미), 조顯閣에 蓬原府院君 鄭昌孫, 上黨府院君 韓明澮, 좌의정 具致寬, 우찬성 朴元亨, 좌참찬 崔恒, 仁順府尹 成任, 行上護軍 宋處寬, 호조참판 丘從直 등이 입시하였을 때, 세조는 유생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고, 藝文館職 兼帶의 유신들을 불러서 『역』의 구결을 논란케 하였다.

32) 崔恒, 『太虛亭集』 문집 권2 「經書小學口訣跋」.

33) 『중종실록』 권27, 12년 2월 14일(경신). “近柳崇祖之學，乃章句之學，非治身之學也。上必以道學治國，則下之人，風行草偃，士習風俗，必自然而變。”

34) 이 기록은 『선조실록』 권8의 선조 7년 10월 10일(신해)의 조항에 전제되어 있다. 『선조실록』의 임진왜란 이전 부분은 기사가 없는 달도 있을 정도로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전란 중에 史草가 없어서 인조 초에 실록을 편수할 때 諸臣의 문집이나

결·언석 작업을 연기하고자 했으나, 선조는 즉각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같은 해(1574년) 10월 19일(경신)에는 유희춘이 이미 언해 작업에 착수하였다.<sup>35)</sup> 이때 盧守愼은 구결언석의 상정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유희춘은 퇴계의 설을 참고로 하면서 구결언석을 상정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10월 10일(경신)의 『경연일기』 기록에 의하면, 유희춘은 퇴계 교정의 『朱子大全』·『朱子語類』와 四書五經口訣諺說을 참고로 하겠다고 하여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10월 25일(병인)에는, 퇴계의 설을 근간으로 삼아 제설을 절충하고 李珥의 『大學吐釋』을 참고로 하며 異說을 ‘或說’로 부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sup>36)</sup>

이 무렵 퇴계 이외에 이이의 『대학토석』, 朴世茂의 경서토석<sup>37)</sup>, 유희춘의 사서구결 등이 있었다. 곧, 경연의 진강이나 유학자의 경서 연구 때 현토를 대단히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희춘은 1576년(선조 9) 4월 4일(정묘)에 경서 토석 작업을 李珥에게 맡길 것을 허락받았으며(『실록』기록), 다음해 5월에 노병으로 졸하고 만다. 이이는 이듬해(1577년) 四書의 언해를 마쳤다. 단 그 원고는 선사투진(繕寫投進)되지 않았다.<sup>38)</sup> 그 뒤 1585년(선조 18) 정월 초하루(계유)에 鄭

史乘이 참고로 이용되었다. 선조 초년의 경서 구결 제정과 관련한 기록은 당시 교서관제조로서 서적의 교감과 간행에 깊이 간여한 유희춘의 『미암일기』로부터 기록을 전제한 것이 많다.

35) 『미암일기초』와 『실록』의 해당일자 기록 참조.

36) “東方自古未有咀嚼經訓沈潛反覆乎朱子文語如李滉者也。 臣謫居時用十年之功， 研窮四書， 有所論說， 及見李滉之說， 相合者十七八。 滉之經說， 甚爲精密， 雖或千慮之一失， 然不害其爲得處之多也。 又李珥有大學吐釋， 臣曾與珥在玉堂， 說及大學， 語多契合， 以此今亦將取來， 大槩臣立朝之日， 欲博問廣取， 俟退休閑暇， 斟酌從長， 每成一書， 輒當送獻。 但折衷甚難。” 上曰，“若到兩說俱不可廢處， 可兩存之。 朱子於或說亦兩存之。 此可法也。”(『미암일기초』 선조 7년 10월 25일 병인)

37) 1574년 그해 윤12월 초2일(임신)에, 박희립은 ‘書傳吐釋’만 헌진한다는 회답을 보내왔다(『미암일기초』 참조).

38) 이이의 『四書栗谷先生諺解』는 1809년(순조 9)에 이르러 洪啓禧에 의해 운각인서체

述·崔永慶·洪晚·韓百謙·鄭介淸이 校正郎에 임명되어, 경서의 구결언석을 새로 시작하였다.<sup>39)</sup> 퇴계의 제자이던 趙穆도 공조정랑의 직함으로 불러와 그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다음해(1586년) 2월까지 『소학』과 사서의 언석이 완료되어 繕寫와 讎校의 일만 남은 상태였다.<sup>40)</sup> 경진자본 『小學諺解』에 실려 있는 李山海의 발문에 의하면 『소학언해』는 1586년 여름에 繕寫·投進되어 간행이 이루어졌다. 四書의 언해본은 선조 23년에 陶山書院에 내사한 경진자본이 傳存하므로, 적어도 1590년 무렵에는 경진자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경 가운데 『예기』와 『춘추』는 애당초 諺釋을 시도하지 않았다. 『시』·『서』·『역』의 언석본 편찬은 1601년(선조 34)에 재개되었다.<sup>41)</sup> 단, 『역』의 언석본은 1594년(선조 27) 10월 24일(무진)에 入內令이 있는 것으로 보아,<sup>42)</sup> 임란 이전에 일단 成書된 것이 있었던 듯하다. 『주역』은 1601년에 진강이 다시 시작되고 그 해에 전담국을 설치하여 언해본을 편찬하라는 왕명이 있었다. 이듬해 1602년(선조 35)에 이른바 임인본 『주역언해』가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시경』의 구결과 언해는 고려 말, 조선 초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퇴계의 『사서삼경석의』와 교정청 언해본에 의하여 일단락되었다. 퇴계의 『시석의』는 조선전기 『시경』의 언해 성과를 종

---

활자로 간행된다. 이이는 1584년(선조 17)에 몰하기까지 동서 분당의 당쟁에 연루되어 경서언해본을 완성할 여유가 없었던 듯하다.

39) 『선조수정실록』의 해당 일자 기록 참조.

40) 『선조실록』 권20, 19년 2월(不書日). “工曹正郎趙穆, 陳疏乞退. 其疏略曰……今小學四書讎譯校正廳中, 略已畢功. 所未訖者, 只繕寫讎校一事而已. 如臣有無, 本不關輕重. 況於功役已畢之後乎?”

41) 1601년 10월 19일(계미)에 吳億齡은, 『시』와 『서』의 언해본이 전쟁 이전에 간행되었지만 入啓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간본을 외방에서 구할 것을 청하였다. 『선조실록』 권142, 34년 10월 19일 기록 참조.

42) 『선조실록』 해당 일자 기록 참조.

합한 대표적 저작으로서 새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표 : 조선 전기 경서의 현토·언해 과정

시 기	현토·언해	작 업 자	비 고
1466(세조12) 무렵	小學·詩·書·禮·論·孟·庸·學 口訣	世祖(小學)·鄭麟趾(詩)·鄭昌孫(書)·申叔舟(禮)·李石亨(論)·成任(孟)·姜希孟(庸)·洪應(學) * 丘從直·金禮蒙·鄭自英·李永根·金壽寧·朴槿 교정	전하지 않음
중종 초	經書口訣(諺解)	柳崇祖 등	전하지 않음 『眉巖日記』참조
1539(중종34)	諺解孝經·小學	崔世珍	중종실록 5월17일
중종·명종 무렵	經籍吐釋	朴世茂 (선조 7년경, 書傳吐釋만 遺傳)	전하지 않음(眉巖日記)
명종·선조 무렵	四書三經釋義	李滉	現傳
1573(선조6)이전	四書口訣	柳希春	전하지 않음(眉巖日記)
1574(선조7)이전	大學吐釋	李珥	洪啓禧 私刊
1574년 무렵	經書口訣·諺解	柳希春(受命, 未完)	전하지 않음
1577(선조10) 무렵	中庸·論語·孟子 吐釋	李珥	洪啓禧 私刊
1585(선조18)부터 임란 이전	小學諺解 (선조19년庚辰字本)	校正廳(鄭述·崔永慶·洪晚·韓百謙·鄭介淸 등)	1588년 1월 內賜本
	四書諺解 (선조23년庚辰字內賜本)		1589년 7월 內賜本
	詩·書諺解(임란전 成冊, 임란 이후 投進)		초간 시기 미상 『詩經諺解』는 1613년 9월에 內賜
	周易諺解		1594년 10월 24일 내사령(『선조실록』)
	孝經諺解		1590년 9월 내사본
1601~2 (선조34~35)	周易諺解	校正廳(尹根壽·洪暹·許箴·李好閔·朴弘老·申湜·康復誠·李德胤·金光燁·尹光啓·韓百謙)	現傳
1605년 완성 (인조조 간행)	周易本意口訣附設	崔竝	강원도 간성 간행 목판본

## 4. 맺는 말

퇴계는 『시집전』과 『시전대전』의 小註를 참고로 하여 시편의 義理를 해석하였다. 대전본 小註가 『시집전』과 모순되거나 小註 사이에 취지가 상이한 경우에, 비록 『시집전』을 변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하였지만, 정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설을 면밀하게 대조하였다.

또한 퇴계는 시편의 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경문이나 新註 및 대전본 小註의 난독자[僻字]나 破讀字에 대하여 그 음과 훈을 살폈다. 구석의본의 음주나 속음을 정정하고자 주희의 음이나 대전본의 음을 환기시키기도 하였고, 여러 운서와 자서(『옥편』)의 음과 훈을 참고로 하였다. 특히 퇴계는 『광운』과 『예부운략』을 활용하였다. 간혹 『광운』의 간략한 훈석에 의거해서 한자음을 추정하다가 성조의 차이와 의미 분화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예도 있다. 그러나 자음과 자훈을 고려하여 經文과 傳文을 해석한 것은 경학 연구에서 장구 해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퇴계는 시편에 나오는 語辭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할 때 『시집전』에 의거하였다. ‘虛字不釋’의 원칙을 따른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구문의 파악에서는 『시집전』의 주를 지남으로 삼되, 언해할 때 전통적인 언해 방식을 참조하였다. 일례로, 이중부정문(無指代名詞를 사용한 부정문)의 ‘莫~非~’ 구를 언해하면서 ‘莫~’을 최상급으로 해석하는 관습을 따른 사실을 들 수 있다. 단, 퇴계는 어사와 구문의 문법적 특징에는 주목하였으나 古漢語 어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퇴계가 『시석의』에서 구사한 훈고학[소학]의 방법은 조선 경학사 및 지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퇴계의 ‘章句之學’은 문헌을 校合하고 자서·운서를 적극 활용하는 문헌학의 방법을 내포하고 있었다. 퇴계는 ‘義理之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章句之學’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 그렇기에 퇴계는 “경서의 글자 해석이 천착과 오류가 많아 경전의 본뜻을 잃어서 후학들을 그르침이 많다”고 여겨서, “그 천착을 바로잡고 오류를 확정하여 경전의 옛 뜻을 되돌리고 성현의 본뜻을 다시 찾았다”, 그것은 조선의 경학을 훈고학[소학]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게 만드는 실천적 작업이었다. 그리고 퇴계의 ‘장구지학’은 조선후기에 조선 독자의 문헌고증학이 발전하는 데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 【참고문헌】

- 『退溪集』,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1968.
- 『增補退溪全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5년 영인.
- 『退溪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29-31.
- 『栗谷全書』,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44-45.
- 『太虛亭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9.
- 『四佳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10-11.
- 『南冥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31.
- 『惺齋先生文集』, 退溪門徒陶山及門諸賢集,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82.
- 『順菴集』, 민족문화추진회,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229-230.
- 『五經淺見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년 영인.
- 『四書栗谷先生諺解』, 成均館大學校 養賢齋 1973년 영인.
- 『眉巖日記草』, 潭陽文化院, 1990.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1981년 영인.
- 『排字禮部韻略』, 東洋學研究資料叢書 第1輯, 嶺南大學校 東洋文化研究所 1968년 영인.
- 『字典彙編』(『增修互註禮部韻略』 수록), 字典彙編編委會, 字典彙編 29,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 『壬子新刊禮部韻略』, 京都大 文學部 圖書室 所藏.
- 『禮部新降通併韻略』, 京都大 文學部 圖書室 所藏.
- 『附釋文互註禮部韻略』, 四庫全書本 / 四部叢刊本.
- 『古今韻會舉要』, 高麗大 晚松文庫本.
- 『古今韻會舉要』, 1883년(고종 20) 淮南書局刊行本.
- 『古今韻會舉要』, 亞細亞文化社 1975년 영인.
- 『十駕齋養新錄』, 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 所藏 潛研堂全書 子 所收.
- 『徐氏筆精』, 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 所藏 碧琳琅館叢書 丙部 所收.
- 『四書大全』, 京都大 文學部 圖書室 所藏 明版本.

『詩傳大全』, 京都大 人文科學研究所 所藏/ 서울대 규장각 소장.

『詩集傳』, 四部叢刊本.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일지사, 1999.

\_\_\_\_\_, 「退溪와 茶山－문헌학의 연속성과 차별성」,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3호, 慶北大學校 退溪研究所, 2003. 8. pp.91-114.

王力, 『詩經韻讀』, 上海古籍出版社, 1980.

楊伯峻 『文言文法』, 中華書局, 1972初, 1982 重版.

Abstract

## Toegye's Philology in the Study of Shijing

Sim, Kyung-Ho

Since Toegye pursued meanings to promote moral character, his primary focus was not to prove literary analysis; rather his philology questions whether contemporary philology should pursue proof of words and phrases or higher humanistic meanings.

But Toegye more than ot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which means philology in the period of literature in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what he studied. He introduced the method of commentaries to comprehend true meanings of writings, applied bibliographical methods to comment on literature, and was involved in publishing books. His commentaries were not limited to technical analysis, but extended to reflect his inner thoughts and proceed to sincerity.

**Key Word**

Yi Hwang, Philology, Commentary, Shijing